

종합·해설

與 신당과·민주·국중당, 교섭단체 추진 배경

당 해체 않고 신당 대열 참여 가능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의 '탈당 선언'을 계기로 이르면 이달말까지 적어도 10여명에 이르는 여당 의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교섭단체 구성'이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원내외 인사·의원들 공감대 형성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섭단체 성격>은 교섭단체 구성 방안은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부터 정계개편에 대비, 추진하고 있는 회심의 카드다.

한다. 탈당이나 당 해체를 하지 않고서도 통합신당 창당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소속 인사들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교섭단체는 탈당할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도 동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감대 형성=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열린우리당 일부 강경 신당과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국민중심당 및 민주당 의원들과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탈당을 주저하고 있어

고민"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輿의원 탈당 수가 최대 관건될 듯

하지만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 수가 20명이 넘으면 오히려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자제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합 지지·기득권 포기할 것"

與 전·현직 지도부 "당 일각서 탈당의사 발언 격정"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문희상·정세균 전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천정배 의원 등 전·현직 지도부는 7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통합의 국민정당을 만들어 나가고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를 포기한다"고 합의했다.

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원칙있는 대통합의 국민정당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우 대변인은 "기득권 포기"에 대해 "우리가 집권여당이어서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니냐는 외부세력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당으로서 향후 대통합 과정에서 기득권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김 의장과 정 전 의장 두 분이 대권 후보를 포기하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정치권 당원 단합대회

열린우리당 광산구당원협의회는 6일 오후 4시 광산구 운남동 근로자 노인복지종합센터에서 김동철 의원 등 5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당원 대단합대회'를 가졌다.

열린우리당 광산구당원협의회는 6일 오후 4시 광산구 운남동 근로자 노인복지종합센터에서 김동철 의원 등 5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당원 대단합대회'를 가졌다.

■염동연 의원 탈당 선언 왜?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복잡하게 얽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여당 내 정계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장 10여명의 여당 의원들이 선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당원에 상처만 남겨 신당 창당에 부정적 영향 우려"

염 의원은 정계개편 논란 이전부터 당내의 대표적 통합주의자였다. 지난 2005년 당내 실용-개혁파간의 노선 투쟁으로 촉발된 '단닝구-백박지' 논쟁 당시에는 당내 개혁 강경파들을 향해 상임중앙위원직을 내던지기도 했다.

통합신당파에 속했던 염 의원은 말을 아껴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거취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염 의원은 최근 "노 대통령의 측근 인내가 통합신당을 한다고 탈당한다면 노 대통령의 등에 칼을 찌른 사람으로 비칠 것 아니냐"며 "그러나 당내 신당파 의원들은 '이대로 관망해서는 안된다'며 나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



했다. 결국 염 의원은 노 대통령과의 인연을 떠나 민주세력과 미래세력이 모이는 통합신당 창당은 피할 수 없다는 정치적 선택을 바탕으로 탈당이라는 조강수를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고건 '한일 해저터널' 공약 검토

거제~쓰시마~규슈 연결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선공약으로 '한일해저터널' 건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며 "조만간 공약체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0년대 초 처음으로 한일 해저터널 아이디어가 제기된 이후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지만,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적은 없었다.

Large advertisement for '전남고시학원' (Jeonnam Gosihakwon) featuring '사립 교사 임용고시 특강' (Private Teacher Employment Exam Special Lecture) and '사립교사가 될수있는 최고의 기회' (Best opportunity to become a private teacher).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ates.

Advertisement for '광주광역시 광고' (Gwangju City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011-609-1245.

Advertisement for '광주 도시관리계획' (Gwangju Urban Management Plan) regarding public participation in plan revision. Contact: 062-360-7454.

Advertisement for '정규직원모집' (Regular Employee Recruitment) by '제일판지산업' (Jeil Paper Industry). Contact: 061-381-6090.

Advertisement for '신입 및 경력직원(설계·감리) 모집' (New and Experienced Staff (Design/Supervision) Recruitment) by '지이에이' (Ziyei). Contact: 062-382-7560.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with '1월 2일' (Jan 2) exam dates. Contact: 361-8111.

Advertisement for '(주)지이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Ziyei Engineering & Architecture Firm). Contact: 361-8111.